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8.50원 하락한 1,294.5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전일대비 8.50원 하락한 1,294.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한 1,299.0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양방향 수급을 소화하며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고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다만, 오후장에서 환율은 1,292원까지 하락폭을 키웠으나 장 후반 낙폭을 일부 반납하며 1,294.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8.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9.9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99.00	1300.60	1292.10	1294.50	1296.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14.78	917.86	907.53	908.8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34.21	1437.34	1424.34	1429.4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3	-5.19	-11.93	-23.73
결제환율(수입)	-0.05	-4.22	-10.38	-20.7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에...1,2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94.50) 대비 2.10원 상승한 1,294.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제한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11월 PCE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이어갔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101.727로 전장대비 0.25% 하락했다. 반면,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뉴욕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증시 역시 외국인 순매수 진행에 따른 달러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말 네고 등 실수급 위주의 물량 유입도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말 크리스마스 휴장 이후 한산한 장세 및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 부재로 전반적인 환율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89.40 ~ 1299.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82.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0원 ↑
	■ 美 다우지수 : 37545.33, +159.36p(+0.4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1.1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8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